

“ 숨은 제자들 ”

■ 이종윤 원로목사

이 세상에는 이름은 신자인데 숨어서 믿는 신자들이 많이 있다. 밤에 남의 눈을 피해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런 사람이다. 이들은 산헤드린 공회원으로 유대인들의 지도자였다. 자기 믿음을 표출하면 기득권을 잃어버릴 것이 두려워 믿되 숨어서 믿는 자들이었다. 니고데모는 예수 공생애 초에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으로 고백했으나, 공개적으로 예수를 찾아 나오지 못하고 밤에 찾아왔고, 우리 주님이 정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침묵만 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다. 그는 의로운 사람으로 예수님을 정죄한 사람들의 결의와 행사를 찬성하지 아니 했으나 그는 아무 항의를 하지 않고, 그날 이후 이 두 사람의 이름은 더 이상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들은 때를 놓친 사람들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워 다 도망친 상태에서 이들은 빌라도에게 과감하게 예수의 시체를 장례할 터이니 시체를 달라 했다. 그러나 그것은 신앙의 담대함처럼 보이나 실상은 12제자의 실패에 대하여 더 많이 말하고 있을 뿐이다. 죄 많은 이들이 죄책감 때문에 더 많은 봉사와 헌금을 바치듯이 이들은 신행일치 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멀리서 구경만 하다가 죽은 시체를 장례하겠다 함은 예수님을 위한 것도 되겠지만, 유대인들에겐 안식일 전에 시체를 치워야 했고, 로마인에겐 시체로 인해 민란이 일어나는 염려가 있을 때, 이들이 나타났으니 쉽게 허락을 받을 수 있고, 예수께도 덜 미안한 생각을 한 것이다. 그러나 많은 숨은 제자들처럼 그들은 주님 위해 일할 기회를 놓친 것이다. 그들은 사람의 눈을 두려워했다. 그들은 ‘유대인이 두려워’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드러나게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지 못한 것이다. 사람의 칭찬을 구하려는 허망함과 조소를 당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주님을 바로 믿고 따르지 못하게 한 것이다. 수년 전 UN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투표에서 대한민국은 북한 눈치를 보면서 기권을 한 적이 있다. 불의에 침묵을 지키고 있을 때 다가올 심판 날의 위험이 있을 것이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침묵을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있을까? 그들은 습관적·직업적 신앙인이었다. 타 종교의 도덕성과 야합한 혼합주의자요 세속화되어 불순종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거부한 자요 교회 문화와 신앙생활에서 단절된 자 즉 이름만 가진 신자(Nominalist)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아리마대 요셉을 끌어내었다. 기회를 놓친 겁이 많은 아리마대 요셉도 막상 무죄하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는 더 이상 침묵만 할 수 없었다. 그리스도의 신성이 부인되고 진리가 훼손되고 교회의 머리 되심이 거부되며, 그의 몸 된 교회가 비난의 대상이 될 때 그리스도를 위해 당신도 입을 열어 그를 방어해야 되지 않을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다. 요셉은 마침내 그리스도의 기록하신 몸을 장례라도 해야겠다고 나섰다. 그리스도 예수의 놀라운 인내가 그를 끌어내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자기를 위한 기도 대신 털 깎는 자 앞의 양과 같이 잠잠히 고난의 십자가를 담당하셨다. 땅도 하늘도 죽음도 성전도 다 주님의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주님을 버렸다. 결국 요셉과 니고데모는 마음을 열고 입을 열었다. 요셉은 더 이상 숨어 있지 않았다. 빌라도에게 시체를 달라 했다. 그리스도와 무관한 자가 시체를 달라 할 이유가 없다. 원수들이 멀리 가 위험은 사라졌다. 그리스도 편에 설 제자들도 모두 도망쳤다. 부자유 권세자였던 그가 그리스도의 시체를 장례한다는 예언의 말씀을 이룬 것이다. 밤이 깊고 새벽이 가깝다. 지금은 당신이 일어나야 할 때다. 나는 아리마대에 살지 않고 이 시대에 빌라도도 없지만 내가 주님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개인적 위험을 감수하라. 당신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 위해 당신은 죽을 준비되었는가? 영광 받으신 주님께 당신은 공개적으로 나아와야 한다. 도적질하지 말라 하신 주님 앞에서 도적질한 죄를 회개할 줄 알면서, 내게로 오라 하신 말씀을 불순종한 숨은 제자 되었던 죄를 회개하지 않았다면, 이 부활 절기에 나아오라. 일어나라. 대담하게 주님께 오라. 왕의 왕, 주의 주 그분께만 살든지 죽든지 영원히 영광을 돌리자!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심각단계로 격상된데 이어 서울지역 특히 서울교회 인근 강남 서초 송파지역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확인되고 있어 부득이 정부와 총회의 코로나19 감염예방지침에 최대한 협력하고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우선 이번 주일 전체 성도들이 참여하는 예배 대신 주일 1부 예배시간에 목사 장로 직원 등 소수의 인원만 모여 드리는 예배를 실시간 영상으로 제공하고자 하오니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가정에서 함께 참여하여 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새벽기도회도 별도 공지 시까지 부목사님의 인터넷 영상말씀으로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예배는 보내드릴 순서지를 통해 가족들과 함께 드리시되 설교순서에는 서울교회 유튜브 설교영상으로 대신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주일 1부 예배시간에 제공되는 실시간 생방송 접속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오전 9시, 아래에 기재된 서울교회 공식 유튜브 채널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유튜브에서 [서울교회 공식 유튜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예배 영상을 보면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 사정상 1부 실시간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은 2부나 3부 또는 편리한 시간에 아래 유튜브 채널을 클릭하시면 그대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접속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분은 사무국(02-558-1106)으로 연락하여 별도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링크 : <https://www.youtube.com/channel/UCziHchZPo8YwmR9UYpoXJrA>

비록 교회에서의 공동체 예배가 아니더라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경건성을 꼭 지켜주시고 아울러 온종일 주일성수의 기록성도 훼손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또 앞서 안내하여 드린대로 영유아유치부, 유치동부는 부서 해당 교역자들이 SNS로 부모님들께 보내드리는 5분 메시지로 대신하며, 사랑부는 가정에서 1부 예배시간에 제공되는 실시간 인터넷 영상으로 예배드리도록 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계속 집중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서울교회 당회 드림

우리의 비전 (vis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p style="font-size: small;">서울교회QR코드</p>
------------------------	---	---

부 목 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전도사 박미라	교육전도사 김은숙	협동목사 김의창 심우진 전재홍
선 교 사 전광해(사야사), 이은준(강혜정, 양재성이현주(카자흐스탄), 이경엽, 조남해(방글라데시), 조범연(교회정, 우상식(김정옥(인도),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김용진(황경해(말리우), 김영호(서형정(러시아), 허창범(한미산(일본), 김나형·오정녀(캐나다), 김중일(백순미(미국인) 노동자, 박명성(총회), / 이사, 비스타파, 사지, 에누(인도), 스프로브론이, 필리핀, 프란스코, 수레시, 수바쓰, 알로로, 비누쁘도, 보다스코, 린롱, 수완준(방글라데시) / 김태식, 윤영모, 이금순, 김명일(군선교) / 정상진(홍성임(필리우), 이재훈(박병진(캄보디아), 이재훈(박재연(마다가스카르)		

	<p>천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p> <p>대한예수교 장로회</p> <h1 style="font-size: 2em;">서울교회</h1> <p>SEOUL PRESBYTERIAN CHURCH</p> <p>원로목사 이종윤 Emeritus Pastor Lee Jong-Yun, Ph. D., D.D., D. D.</p>	
062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길 7 7, Samsong-ro 51-gil, Gangnam-gu, Seoul Korea		
Tel.558-1106 / Fax.558-2107 http://www.iseoulchurch.or.kr/		

“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

■ 고전 1:4-9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인사말을 한 후에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한 감사와 소망을 하나님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일반 은총이 아닙니다. 지금 사도가 감사하고 있는 그 은혜의 실체는 6절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속에 견고하게 심어진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1.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수여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 4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는 이 은혜를 수여받을 길이 없음을 말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늘 나아올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항상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은혜의 수단을 적극 사용하도록 하셨습니다. 은혜의 수단은 말씀과 기도와 성례이며 이 모든 것은 예배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주신 은혜의 수단인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사모하고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우리의 호흡함도 우리의 움직임도 우리의 존재가치도 사실 무의미한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다고 할 때 그 가지의 모양이 아무리 준수하고 매력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소용이 없는 것처럼 인간의 가치는 하나님이 붙들고 있을 때만 유효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은혜를 갈망하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고자 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비결입니다.

2. 그리스도의 증거를 견고하게 하라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그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풍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하나님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빌 4:19)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신앙생활의 매우 중요한 도전과 격려와 용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영적 무기력함을 느끼는 자들에게 날마다 그리스도 앞에 왜 나와야 할지 사도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매우 활력 있고 생동감이 넘치게 하며 기쁨과 평강이 충만한 삶으로 이끕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증거가 허공에 떠도는 낯선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강렬하게 영향을 미치는 활력소임을 더욱 실감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서 더욱 확실하게 다가와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분명한 증거로 자리 잡게 되면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며 바닷물이 흉용하고 뒤늦어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치는 대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시 46:2-3).

본문에 사용된 ‘견고케 된다’는 헬라어는 부정사 수동태로 가만히 있으면 견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은혜의 수단들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맺는 말

당신은 활력 있는 신앙생활을 원하십니까? 믿음이 강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을 적극 활용하십시오. 예배를 무엇보다 귀중히 여기십시오. 동시에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감추어두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알리십시오.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죄인들의 구세주이시어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전파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배나 더 증가될 것이고, 그 은혜로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더욱 분명하게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오십시오. 망설이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담대히 나아오십시오. 그리하면 반드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sider	Prayer
I 오전 9시	장석남 목사	오치열 장로
II 오전 11시 20분	인터넷 영상	
III 오후 2시	인터넷 영상	

- 입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 예배예의 부름 Call to Worship호 6:1-2... 인 도 자
-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 찬 송 Hymn6(8)..... 다 함 께
-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함 께
-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127(사순절4)... 다 함 께
- * 송 영 Doxology 1(1) ... 다 함 께
- 기 도 Prayer 말 은 이
- 찬 송 Hymn28(28)... 다 함 께
-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고전 1:4-9... 인 도 자
-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함 께
- 봉 헌 Offering 다 함 께
- * 봉헌송 Offering Hymn634(70)... 다 함 께
-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 도 자
- 찬 양 Anthem 찬 양 대
-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함 께
- 설 교 Sermon ...“주예수 그리스도의 나타심을 가림야!”... 서창원 목사
- * 찬 송 Hymn179(167)... 다 함 께
-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함 께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찬 양 예 배

오후 5시 · 인도: 가족 중 어른, 설교 전례송 목사

- 목 도 다 함 께
- 성 시 시 62:1-2 인 도 자
- 찬 송 10(34) 다 함 께
- 기 도 가 족 중
- 성 경 롬 13:8-10 인 도 자
- 설 교 ... “하나님 뜻에 부합한 성도(3)” ... 인터넷 영상
- 찬 송 384(434) 다 함 께
- 주기도 다 함 께

수요예배 (개 인 기 도)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홍해관김양민박수강김복희2
설 교 서명철 목사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헌 금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 부	가브리엘	백경화	이수정	박승기	윤주일	가브리엘		
II 부	할렐루야	류충기	차주연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핸드벨	송재월	
III 부	임마누엘	유태왕	김윤지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임범창	안효주	박수강	윤주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고전 1:4)		
영어예배	예루살렘				금주의 성구			
수요 I 부								
수요 II 부	시 온	최유현	김예지	조현정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11시20분	8층(802호)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minster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본당

교 회 소 식

- ◆ 알 림
- 1. 101호 예배 및 부서 모임
중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 신앙강좌부 : 주일 오후 12시40분
- 2.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 3. 403호 예배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 4. 602호 부서 모임
청년2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20분
- 5. 603호 부서 모임
소망부 : 주일 오전 10시-11시, 오후 1시-2시 / 청년1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6. 609호
예배다부 성경공부 : 주일 오후 1시-2시30분
- 7. 701호 예배
유초등부 연합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8. 706호 예배
유아,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9. 802호 예배
영어예배부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10. 902호
디아스포라부 성경공부 : 주일 오후 1시-2시
- 11. 이번주 심방 일정
3-1, 6-1, 8-1, 9-2~3, 10-1, 12-2, 13-4~5다락방

지난주 출석현황(인터넷 영상예배)			
주일1,2,3부	찬양예배	주일예배 합계	새벽기도
1,846명	350명	2,196명	1,558명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수입, 지출 내역보고(3/15)			(단위 : ₩)
월 일	적 요	수 입	지 출
3월15일	헌 금	10,773,000	
	선 교 비		1,300,000
	구 제 비		300,000
	출 판 비		200,000
	연합사업비		500,000
	지원교회		600,000
	복리후생비		182,240
	통 신 비		284,630
	수도광열비		377,070
	차량유지비		255,000
	소모품비		238,290
	환경유지비		71,800
	수선유지비		125,000
	식당운영비		190,910
	합 계	10,773,000	4,624,940

코로나19 바이러스 지역확산에 따른 서울교회 영상예배 지침

-주일 영상예배 지침-

성도님들께서는 이번 주일예배 준비와 예배 자세에 관한 아래의 지침을 따라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먼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공간을 정숙하게 구별하여 주십시오.
- ② 예배자로서의 옷차림에도 각별히 유의하여 주십시오.
자녀들에게도 복장과 자세 모두 교회에서 드리는 공예배가 장소만 바뀐 것이므로 영과 진리로 경건하게 예배드리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③ 예배 시작 5분 전, 마음을 모아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여 주십시오.
실시간 영상은 5분 전부터 방송됩니다.
- ④ 예배순서에 적극 응답하며 참여하여 주세요. (“아멘” 댓글 작성 등)
*기원기도, 신앙고백, 성경봉독과 설교 시 응답, 찬송, 봉헌 등
- ⑤ 축도(폐회기도) 후, 1-2분간 개인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 ⑥ 헌금은 실시간 예배의 헌금시간에 맞추어 따로 준비한 접시나 바구니에 구별하여 드리시고, 추후 교회의 주일예배가 정상으로 회복이 되었을 때 함께 드리시면 됩니다.